

하고 降魔印을 結하였으며 圓形頭光을 陽刻하였다. 間地에는 忍多紋이 彫飾되고 光背周緣에는 火焰紋이 있다.

臺座는 上臺寬으로 中·下臺는 缺失되어 現在 『시멘트』로 伏蓮下臺를 新造하였다. 上臺下部는 一段의 낮은 角形받침이 있고 仰蓮은 單葉重瓣인데 瓣內에는 彫飾이 있다. 이 佛像은 本來 石造이나 現在는 光背와 上臺까지 改金하기 爲하여 韓紙를 받았으며 燦爛한 金色을 漆하고 相好 各部를 彩色하였기 때문에 原形을 많이 그릇치고 있어 甚히 遺憾스럽다. 實測值(cm)는 ……坐像高 七八 肩幅 三八 光背高 一一三 膝幅 六一 頭高 三一 脛高 一四 胸幅 二二 光背厚 一〇 光背廣幅 八九 頭光圓座外徑 一六 光背下幅 五八 內徑 一〇·五 化佛全高 二一 上臺寬 六二 化佛全幅 一五 上臺高 二一 이다. 年代는 佛像의 相好나 肩部 및 光背와 上臺에서 볼 수 있는 樣式 手法 등이 高麗中葉으로 推定된다.

이 石佛의 原位置인 竹嶺頂上도 踏查하였으나 廢墟된지 十餘年이고 또 現在는 이 곳 一帶가 開墾地로 工事が 進行되고 있으므로 別다른 遺蹟을 調査할 수는 없다. 끝으로 이번 調査에서 雪中酷暑에 實測과 調査記錄에 많은 手苦를 한 同人 文甲洙 金和英 兩氏께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註) 龍華殿에 올라가는 入口層階에 放置되어 있는 現高 二六cm 徑 三三cm 一邊長 一三cm의 八角竿柱인데 石燈竿片인지는 알 수 없다. 寺刹側의 말에 依하면 本時부터 이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곳도 過去에 庵子나 小佛宇였음이 짐작된다.

資 料

錦山邑 石塔 二基

李 殷 昌

忠清南道 錦山郡 錦山邑에 石塔 二基가 現存하고 있다. 其一은 中島里 三層石塔이고 其二는 衙仁里石塔이다.

第八卷 第三號 通卷八十號

1, 中島里 三層石塔

錦山邑 東北쪽 丘陵南麓 塔仙洞 民家들이 있는 곳에 三層石塔 一基가 있는바 附近은 寺址로 推測되었다. 一七〇cm 四至에 一五cm 厚의 一枚板石으로 된 臺石위에 三層塔身이 重積되었다. 初層屋身은 柱形表示가 없이 一石으로 된 方石인데 下部 兩側面에 屋身과 임과 같은 突出部가 있고 二, 三層의 「屋身은 各各 一石으로 四隅柱가 刻出되었으며 屋蓋石은 各層 三段級의 「蓋石받침」이 造出되고 若干의 反轉이 보이는 平凡한 모습이다. 그리고 相輪은 없어지고 擦竿孔이 있을 뿐이다. (總高 二五〇cm)

2, 衙仁里石塔

錦山邑 西北쪽 小丘陵이 東南을 向하여 기울어진 용머리 部落 밭가운데에 瓦片이 散在한 寺址가 있고 이 곳에 石塔 一基가 있는바 倒壞된 것을 再建立한 것이다. 下成基壇의 甲石과 中石 등의 石片을 쌓아 놓은 위에 上成基壇의 甲石을 놓아 塔身을 받게 하였으니 이 塔은 元來 重基壇인가 한다. 初層屋身은 四隅柱가 刻出되고 正前面에는 伏蓮座에 結跏趺座한 如來像을 彫刻하였으며 二層屋身은 缺失되고 三層屋身은 屋蓋石에 붙어 있다. 屋蓋石은 一, 二層적과 또 最上層적이 남아 있는바 「屋蓋石 받침」이 四段級, 三段級, 二段級으로 減縮傾向을 보이고 各層 四隅轉角에서 笠形反轉을 하였다. 相輪部는 없어져 未詳하고 元來 五層石塔으로 推測된다. 特히 上下基壇의 甲石에 勾配表示와 四隅降線이 두드러지게 彫刻된點 初層屋身正面에 如來座像이 配置된點은 注目되는 바이며 既往에는 精巧한 石塔이었던 모양이다. 年代는 前者와 같이 麗代의 所建으로 推定된다. (現在高 二五〇cm)

佛國寺 紫霞門上樑文

孟 仁 在

○ 乾隆四十六年辛丑二月 始役五月初四日辰時上樑山中 大德秩